

2020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특집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
2020년 회원총회

[공동대표신년편지] 2020 기운실에 회원님의 기도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가짜뉴스는 왜?” 손봉호 장로를 공격하는가? (백종국)

목차

특집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

[공동대표신년편지] 2020 기운실에 회원님의 기도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3
기운실 회원 설문조사 결과.....	5
2020년 사업계획표.....	8
2020년 예산 보고.....	9
2020년 기운실 회원총회 후기.....	11

더 높은 책무성

“가짜뉴스는 왜?": 손봉호 장로를 공격하는가?.....	13
[교회신뢰운동] <좋은나무> “타다” 논란, 혁신과 편법 사이”.....	18
[교회신뢰운동] 2020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후기.....	21
[좋은사회운동] “교회는 선거중립을, 성도는 선거참여를”_제21대 총선 공명선거운동.....	22

더 깊은 투명성

2019년 재정보고, 후원자명단.....	23
------------------------	----

더 넓은 공공성

활동스케치 (교회와공간포럼/청년파티/자발적불편작은시상식).....	26
전국기운실협의회 현황 / 주소록.....	27
제21대 총선 공명선거운동 포스터.....	28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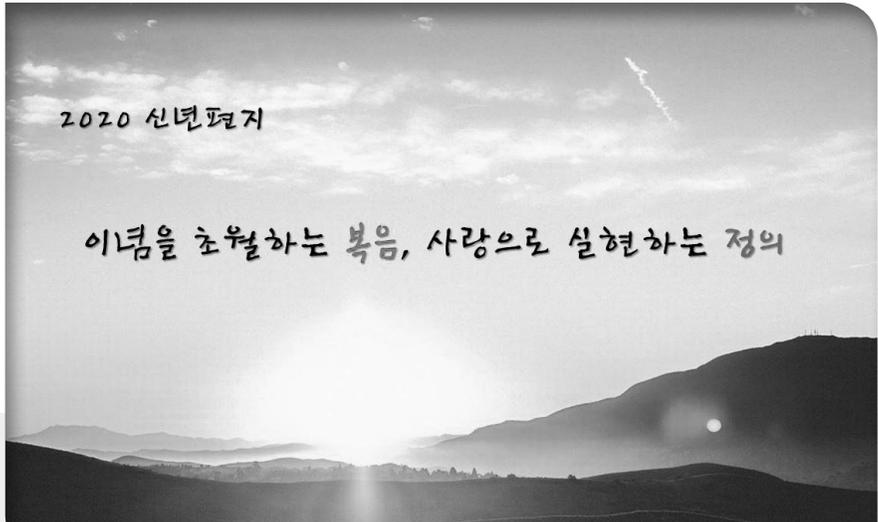
이사 백종국(이사장) 정병오 이의용(부이사장) 강석창 권장희 권혁률 김경수 김양재 김정태 김중구 김홍섭 박계우 박종근 방선기 배중석 송인수 송태근 왕보현 유해신 이문식 임성빈 장동민 정현구 조수진 조주희 조홍식 주광순 지용근 최규창 한정화 감사 황병구 **자문위원회** 손봉호 (위원장) 강영안 광상배 김경섭 라영환 손인용 이동원 이장규 이진오 전재중 황준성 **공동대표** 정병오 배중석 정현구 **상임집행위원회** 정병오(공동대표, 위원장) 배중석 정현구(공동대표) 신동식 (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조성돈(교회신뢰운동본부장) 이상민(좋은사회운동본부장) 목광수 (바른가치운동본부장) 박선영(청년운동본부장) 고재길(기독교윤리연구소장) 이재민(사회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상덕(상집위원) 김성경(상집위원) **기독교윤리연구소** 고재길(소장) 임낙형 (부소장) 성신형 송준인 신원하 이상원 이장형(운영위원) 강진구 김동춘 김승곤 노영상 임성빈 추태화 홍순원(연구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조홍식 이재민(공동위원장) 이주환 조태례(부위원장) 라창호(교회상 운영위원장) 강정규 고기숙 권오용 김미혜 김동배 김정진 김수정 김현호 두재영 박지영 배성훈 송시섭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원명순 이무영 이영분 장동한 장원종 **교사모임** 한성준(대표) 김홍일(부대표) 이은규(사무국장) 권순홍 김중대 김진우 노명원 서현희 우희정 이미나 이화진 임현경 정연석 천무현 최나영 **사무처** 김현아(팀장) 윤신일 최진호(간사) **전국기운실협의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익산 인천 전남 전주 정읍 진주 청주 / (준비지역) 제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1분기호 통권 274호
 소재지 0438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54길 30,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백종국 발행일 2020. 2. 24
 편집인 정병오 편집 윤신일 디자인 송아현

보고기간 2019년 11월 14일~2020년 2월 11일 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창조세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재생종이에 인쇄했습니다.

표지종이는 고지율(재생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20%의 그린라이트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형광광택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윤실 회원 여러분께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2019년 한 해 동안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수고하신 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한 해는 한국 사회나 교회 할 것 없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격심한 이념적 정파적 갈등과 대립을 경험했고, 이는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치열한 논쟁을 통한 더 나은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 대립 앞에 진실과 윤리는 사라져버리고 내 편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불의도 합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분열된 한국 사회를 중재하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 할 교회가 이념의 최극단에 서서 이념 대립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자를 외면하고 거짓과 폭력을 합리화하는 이 일에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면에서 2019년은 그 동안 진행된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와 부작용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 해였습니다. 집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집값을 올리려고 담합을 하면서 집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찌하든지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개혁에 저항하고, 안정된 직장과 직위를 가진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차이를 더 확대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을 자녀 세대까지 물려주기 위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는 상황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과 환대의 분위기가 더욱 없어지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청년 세대의 좌절과 아픔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가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가진 자들의 탐욕을 꾸짖고 나눔의 본을 보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비빌 언덕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는 제대로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염려거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두운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은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기운실이 붙들어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운실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2020년의 슬로건을 “이념을 초월하는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이기에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이념을 상대화하고 부족한 점을 비판하며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부터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탐욕을 내려놓고, 가지지 못한 자와 약한 자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섬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기운실 이사회와 공동대표단, 상임집행위원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도와 지혜를 모으며, 그리스도인 전문가와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는 2월 회원 총회 때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2020년 기운실의 방향에 대해 함께 기도와 뜻을 모아주시고 이를 위한 선한 실천들과 제안을 해 주시며 힘을 합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실**

2020년 1월
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 드림



회원님의 관심이 기윤실의 관심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긴 세월 회원님의 동참과 후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회원님이야말로 기윤실 운동에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기윤실의 운동이 더욱 회원님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회원님의 관심이 기윤실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실](#)



01 조사개요

설문 제목 회원님의 관심이 기윤실의 관심입니다.

설문 기간 2020년 1월 2일(목)~2020년 1월 13일(월)

설문 대상 기윤실 회원

설문 방법 후원자 이메일 및 문자발송

참여 회원 40명 (전체회원 551명 중)



02 다음 중 회원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2개 이상 선택)

관심사	응답자
모두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실천과 행동	8
창조세계를 보호하는 환경보호 활동	7
교회세습 반대 운동	6
교회재정 투명화 운동	8
사회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과 대응	14
교회의 사회적책임 강화	16
학자금, 고금리 등 부채문제에 대한 공공적 해결방안 모색	2
교회의 정치적 중립, 공직선거법 준수	2

관심사	응답자
사회의 부정부패 청산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3
가짜뉴스 근절	2
한반도 평화	3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바른 신앙을 갖는 운동	14
세상 속에서 신앙과 상식을 갖춘 기독교인이 되는 운동	12
청년이 있는 그대로, 주인공이 되는 기독교운동	-



03 회원님의 관심있는 운동본부/사업 선택

자발적불편	8명(20%)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불편 캠페인	6명(75%)
		찾아가는 자발적불편 예배	2명(25%)
교회신뢰	17명(42%)	<좋은나무> 웹진 운영	4명(23%)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5명(29%)
		교회의 사회적 책임	8명(47%)
좋은사회	2명(5%)	청년부채 ZERO 캠페인	1명(50%)
		공명선거운동	-
		윤리적투자운동	1명(50%)
바른가치	13명(32%)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평신도의 상상력	10명(76%)
		긴급 현안 토론	3명(23%)
청년운동	0명(0%)	자체휴강 프로젝트	-
		기윤실 청년위원회	-



04 2018~2019년 기윤실 운동 주제에 관한 질문

■ 주제 :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

질문	답변	
	예	아니오
Q1 위 주제를 알거나, 들어보셨습니까?	26명 (65%)	14명 (35%)
Q2 위 주제가 현재 적절하다고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명(97.5%)	1명 (2.5%)
Q3 위 주제가 현재 기윤실 운동에 잘 적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0명 (75%)	10명 (25%)



05 현재 진행하는 운동 외에 기윤실이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선교운동
- 교회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도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신도운동
- 에큐메니칼적 운동, 교회와 사회의 통합 등
-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혐오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기독교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내의 혐오와 폭력적 문화를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주세요
- 교회개혁운동 강화

- 절약운동
- 자살예방
- 반기독교적 가치관을 표방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퇴출운동
- 운동 관련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미나
- 평신도의 삶에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운동
-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을 진보/보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권면과 설득



2020년, 기윤실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기윤실은 올해도 “정직, 책임, 정의”를 핵심가치로 이 시대와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2018-2019년)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슬로건으로 하여 사업을 전개했던 기윤실은, 2020년의 시대적 상황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기윤실은 복음의 초월성과 보편성, 사랑과 정의를 생각하며 우리 사회와 교회의 회복과 온전함을 위해 힘! 쓰겠습니다. 미약하나마 기윤실 운동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께서도 기도와 실천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기실**

■ 운동단위별 주요 사업

운동본부	사업명	내용
자발적불편운동	교회와 함께하는 계절별 캠페인	이웃과 창조세계를 섬기고 돌보는 운동 (검소, 나눔, 배려, 환경, 기후변화대응)
	실천 확산을 위한 워크숍/강좌	
교회신뢰운동	좋은나무	교회와 사회를 조망하는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
	2020년 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여론조사 실시, 분석 및 결과 발표, 실천사항 제시
좋은사회운동	부채해방운동	청년부채제로캠페인 (재무 교육, 상담/전환대출지원)
	공명선거운동	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감시단 운영 등
	윤리적투자운동	윤리적투자,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쉽이있는교육	쉽이있는교육 캠페인
	낙태죄헌법불합치 후속운동	개정입법안 발의 등
바른가치운동	바른가치세미나	기독교윤리의 주요 현안과 이슈의 공론장
청년운동	자체휴강프로젝트	나를 찾는 토요일, 워드캠프
	모두를 위한 교회문화 운동	청년의 의식과 필요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컨퍼런스 개최
	청년의기도	청년의 일상과 사회 환경을 위한 기도문 정기 발행
자치기구	기독교윤리연구소	기독교윤리의 주요 현안과 이슈 연구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포럼 및 시상식
연대활동	성서한국,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평신도의 상상력,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성탄절 연합예배, 교회가는길	
사무처사업	2020년 슬로건 사업	실천 캠페인 제안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회적대화 및 기도회 개최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년 예산 보고

2020년 수익-비용 예산

과 목	공익목적사업 (단위: 원)	
I. 사업수익		307,200,000
1. 회비수익 (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142,000,000	
2. 교회/기관기부금수입	101,000,000	
3. 특정기부금수익 (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58,000,000	
4. 기타수익 (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6,200,000	
II. 사업비용		324,900,000
1. 사업수행비용	171,296,160	
2. 일반관리비용	106,926,720	
3. 모금비용	46,677,120	
IV. 사업외수익		17,800,000
1. 노동부지원금	4,250,000	
2. 타기금전입금	13,050,000	
3. 잡이익	500,000	
V. 사업외비용		100,000
1. 잡손실	100,000	
수익 총계		325,000,000
비용 총계		325,000,000

예산편성기준

- 회비수익과 교회/기관기부금수입은 최근 2년간 추이와 2020년 1월 기준 약정 금액을 고려하여 편성했습니다. 지역회비는 지역기윤실의 CMS회비로 매월 출금액을 그대로 각 지역에 전달합니다. 특정기부금수익의 목적후원금은 차치기구인 사회복지위원회의 기금이며, 지원후원금은 △부채해방운동, △슬로건사업, △30주년기념자료집 등의 사업에 프로젝트 모금을 통해 총당할 계획입니다.
- 사업비용은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법인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반관리비용(인사, 재무, 감독, 관리 등의 제반 비용) ▲모금비용(지역기윤실 회비, 회원 정보관리 및 서비스 소식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분류하며 이는 각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합니다.

2020년 비용성격별 구분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사업수행비용	85,930,000	69,796,160	0	15,570,000	171,296,160
일반관리비용	0	69,726,720	27,300,000	9,900,000	106,926,720
모금비용	0	19,777,120	1,500,000	25,400,000	46,677,120
합계	85,930,000	159,300,000	28,800,000	50,870,000	324,900,000

2020년 사업/계정별 예산

구분	회의비	홍보비	인쇄비	강사비	진행비	합계
지발적북편운동본부	250,000	400,000	600,000	400,000	350,000	2,000,000
교회신뢰운동본부	840,000	5,860,000	700,000	21,200,000	15,800,000	44,400,000
좋은사회운동본부	1,240,000	490,000	530,000	4,400,000	10,070,000	16,730,000
청년운동본부	1,060,000	740,000	600,000	1,800,000	2,870,000	7,070,000
바른가치운동본부	0	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사무처사업 (30주년자료집/슬로건사업 등)	500,000	400,000	1800,000	5,000,000	1,600,000	9,300,000
사무처운영 (총회/각종회의/회원홍보 등)	3,500,000	290,000	600,000	0	4,810,000	9,200,000
목적사업비(사회복지위원회)						8,000,000
협력사업비(연대활동)						3,800,000
합계	7,390,000	8,180,000	4,930,000	33,400,000	35,800,000	101,500,000

* 비용성격별 구분표의 <사업수행비용> 중 '분배비용'과 '기타비용'의 합산이 사업/계정별 예산 총액에 해당합니다.

수입예산액에서도 볼수 있듯, 기윤실 운동은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기윤실 운동이 이 사회와 교회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신뢰하며 지지해주시는 동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맡겨진 사명을 건강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소중한 동참과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규 후원 및 증액

- ✓ 기윤실 홈페이지 후원게시판과 우측 QR코드에 접속하시어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금 보내실 계좌 (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037-01-0504-979 농협 074-01-121183 하나은행 109-228746-00104



기윤실 후원

2020년 회원총회 후기

글_ 최진호 간사

2020년 기윤실 회원총회가
2월 11일 저녁 6시30분-9시30분까지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5층에서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년강연회

현재 우리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이념 차이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혐오의 시선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통해 남기신 복음은 이웃을 향한 환대와 환영 그리고 사랑과 포용이지만, 이데올로기라는 틀 안에서 개신교는 서로를 ‘배척’과 ‘혐오’로 대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오늘날 이념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복음을 외면하는 개신교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이념을 초월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백종국 이사장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백종국 이사장은 이념(Ideology)란 “특정한 이상의 달성을 목적으로 동원되는 허위의식 체계”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이념을 받아들일 때





에 '인애'와 '정직'과 '정의'라는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분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회원총회

강연회 이후, 잠깐의 정리 시간을 가진 뒤에 정병오 부이사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의 사업/재정 보고와 2020년 사업과 예산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념을 초월한 복음, 사랑으로 실현하는 정의” 라는 주제

로 다양한 캠페인과 대화와 기도의 장을 마련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기도한다면 이념으로 갈라진 장벽들이 무너지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화해가 이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임원분들의 변동이 많은 해였습니다. 새롭게 취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대와 응원을, 연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랑을, 사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간 수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읍 기윤실이 지난 1월 11일(토) 창립대회를 통하여 출범하고, 회원총회에서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읍에서도 기독교윤리운동들이 활발히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응원과 격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회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정직, 책임, 정의가 사회와 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해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기실**



본 신년강연회의 PPT와 영상 그리고 회원총회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왜

손봉호 장로를 공격하는가



글 백종국 교수(기윤실 이사장, 경성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가말리엘의 지혜를 찾아서

2019년을 보내면서 각 지역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를 접했다. 일부 지역 기윤실이 유튜브의 가짜뉴스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손봉호 장로와 그가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기윤실이 중복이며 빨갱이라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지역 기윤실이 명백한 어려움(?)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가짜뉴스는 꽤 오래전부터 한국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일부 가짜뉴스들이 기윤실에 대해 헐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기윤실 창립 이후 30여 년 동안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기윤실의 활동을 꾸준히 긍정적으로 다루어 왔다. 혹여나 일부 일인 미디어들의 헐담이 있다면 그조차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율법사 가말리엘의 지혜대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다.

손봉호 장로와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일인 미디어들의 주장은 마치 “남대문은 서울의 북쪽에 있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그러나 삼인성호(三人成虎)라,¹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짜뉴스가 나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이제 이 문제를 한 번 다루어 볼 필요가 있겠다.

가짜뉴스와 가짜뉴스 판별법

일반적으로 가짜뉴스(fake news)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공공연한 소식 즉 뉴스를 의미한다.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둘 이상의 관계에서 공공연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 안에서 홀로 떠드는 것은 아무리 근거가 없어도 가짜뉴스가 아니다. 그것을 카톡으로 퍼 나르는 순간 가짜뉴스가 된다. 둘째는 주장의 내용에서 근거와 논리 중 한 가지 이상이 거짓이어야 한다. 학술적인 훈련과 심사를 통해 검증된 주장들은 아무리 서로 견해의 차이가 난다 해도 어느 한 쪽을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꽤

1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면 모두가 사실로 믿게 된다.’(편집자 주)

러디나 풍자라고 주장하면 근거와 논리가 허약해도 가짜뉴스라 하지 않는다. 가짜인데 진짜라고 주장할 때만 가짜뉴스가 된다.

가짜뉴스 판별법도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뉴스의 게시자가 신뢰할 수 없으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장의 내용이 조악하거나 욕설로 시작하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주장의 주요 근거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 되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넷째, 근거들을 풍부하게 제공해도 내적인 논리에 오류가 많으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음란이나 혐오 혹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주장이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독자를 모으려는 선정성이 과도하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짜뉴스 판별 기준들을 가지고 손봉호 장로와 기윤실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다루어보기로 하자.

한국사회에서의 손봉호 크레딧

2004년 「동아일보」가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손봉호 장로가 교육계에서 1위였다. 경제계에서는 이진희 회장, 정관계에서는 고건 전 총리, 종교계에서는 법정 스님이었다. 손봉호 장로가 철저하게 비당파적으로 처신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앞선 정부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비중 있는 공직을 제의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공익적 시민단체에서만 봉사하였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실현 즉 공의와 인애를 실천하는 일에만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개혁적 입장이면서도 2016년 이래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습에서 그의 비당파적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일보」 윤리위원장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북한 정부를 대하는 손봉호 장로의 모습에서 그의 엄격한 복음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손봉호 장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차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첫 번째는 남북나눔운동의 흥정길 목사와 함께 식량 지원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밀알복지재단의 이재서 총장과 함께 장애인용 의료 기구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 다 김일성 동상과 금수산 궁전 참배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북한 정부가 달가워할 리가 없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288만 명이 금강산과 평양 등 북한 지역을 방문했고 거기에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손봉호 장로처럼 처신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유튜브 일인미디어의 손봉호 관련 가짜뉴스 분석

① 가짜뉴스 유투버의 정체성

가짜뉴스의 유투버들이 공통적으로 범한 기초적 실수는 손봉호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손봉호 크레딧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손봉호를 좌파나 공산주의자나 종북으로 낙인찍기 전에 먼저 이미 잘 공개되어 있는 손봉호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20건의 가짜뉴스를 들여다 보면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20건의 가짜뉴스를 게시한 13인의 유투버 중 6명이 목사이다. 이들이 10건을 제출하고 있는 데 온라인상으로 확인해 보면 매우 연로한 분들이며, 그중 2명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료들을 취합할 역량과 기회가 없어 보인다. 나머지는 전도사/선교사가 2명, 기자 출신이 2명, 태권도장 사범이 1명, 직업 유투버가 1명, 게시자 불명이 1건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들이다. 기자 출신자 중 한 명은 명성교회 교인이었으며, 어떤 기독교인터넷방송의 기자였으나 그의 편향성 때문에 이직을 한 상황이다. 다른 기자 출신자 유투

버는 지방지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탄핵심판 반대 의 폭력 시위를 이끌다가 사상자가 발생하자 그 책임으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자신이 청년임을 자랑하는 다른 한 유튜버에 대해 「나무위키」는 “신형 관중, 험한, 일봉 유튜버”라고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 전도사라고 자칭하는 27살의 한 유튜버는 손봉호 장로 관련 방송으로 약 43만의 조회 수를 달성했는데 이로써 한 달 최고 수입이 292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유튜버들의 신앙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목사 중 한 사람은 킹제임스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다가 합동측 이단조사위에서 이단성이 있다는 지적을 당했다. 다른 젊은 유튜버 한 사람은 신사도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 핵전쟁의 대한탄을 예언했으며 현재에도 이단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② 가짜뉴스 유튜버의 논리적 혼란

필자는 분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유튜버들을 장시간 청취했지만 참으로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었다. 그중에서 정동수 목사의 2019년 6월 19일 자 유튜브와 김효정 기자의 2019년 8월 17일 자 유튜브가 가장 잘 정리된 것이다. 그 주장의 주요 근거는 2013년에 최초로 게시되었던 박성업 선교사의 유튜브였다.

박성업 선교사의 핵심 주장은 2013년 당시 사랑의교회 가짜 박사학위 사건에 비판 성명을 낸 사람들이야말로 한국교회 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북한 간첩이라는 것이다. 박 선교사는 핵심적 증거로서 최철호 목사의 ‘아름다운마을’이 금강산 관광 때 찍은 사진들과 ‘기독교청년아카데미’(약칭 기청아)의 교재 일부를 제시했다. 확실히 이 자료들은 당사자의 설명 없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그동안 해명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마을 측은 이 문제가 2018년 12월 「크리스찬투데이」와 「뉴스앤조이」 사이의 이단성 논쟁 와중에서 전자가 후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

거져 나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김일성 찬양 관련 사진과 해설은 가벼운 관광 기념사진의 일부였으며 기청아의 주체사상 해설 교재는 북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 자료에 불과하다는 설명이었다. 여하튼 박성업에 따르면 최철호의 아름다운마을은 ‘성서한국’의 구성원이고, 손봉호 장로는 성서한국의 대표이므로, 손봉호 장로는 중복 세력의 괴수인 것이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의 전형이다.

박성업은 손봉호 장로가 포함된 각종 복음주의 단체들을 연결하여 일종의 간첩 행위 계보도를 만들었다. ‘하나누리재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재단은 정림건축 명예회장 고 김정철 회장의 아들 김형국 목사가 부친의 뜻을 받들어 2007년에 만든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이며 당시에 손봉호 장로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세법상의 독립적 지위를 얻지 못한 소규모 복음주의권의 단체들은 각 단체의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 재단과 연계했다. 이 재단이 그 단체들을 만든 게 아니다. 그러나 박성업은 복음주의 단체들의 활동 중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업들만 부각시킨 후 이 단체들이 이 재단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이 재단이 흑막의 배후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러한 본말전도의 논리 구성과 왜곡된 계보도 작성은 과거 군사독재 하의 정보기관들이 간첩 혐의를 조작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수법이다.

성서한국의 역사를 보면 박성업의 주장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2013년의 성서한국은 학생신앙운동(SFC)를 비롯한 30개 단체와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21개 교회가 참여했던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연합조직’이었다. 진보 측 참여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 아름다운마을의 사례로 성서한국 전체 혹은 성서한국의 대표자들을 북한 간첩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사랑의교회는 2013년 당시 성서한국에 적극 참여했고 거액의 재정을 후원하

고 있었다. 그해에 발생한 사랑의교회 가짜 박사학위 문제를 성서한국이 비판했다고 해서 갑자기 북한의 간첩이 될 수는 없다. 박성업 선교사가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가짜뉴스의 역사적 계보

대부분의 손봉호 장로 관련 가짜뉴스는 최근에 갑자기 분출되었다. 주요 가짜뉴스 20개 중 19개가 2019년 6월 19일 이후에 게시되었다. 2019년 6월 1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2019년 6월 18일 31명의 기독교계 원로들이 한국기독교교회관에 모여 전광훈 목사의 최근 발언들에 대해 한국 사회에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로들은 전광훈이 보여주는 “이념과 신앙을 뒤섞는 행태는 반성경적 반복음적”이며 그의 “정치적 야욕적 망발은 한국교회를 오로지 수

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언행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낚은 극단적 적대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교회와 연합기구를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봉호 장로도 이 성명서에 서명한 31명의 원로 중 하나였다.

그날 이후 손봉호 장로에 대한 공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의 박성업 유튜브만 제외하고 예외 없이 전광훈을 옹호하고 손봉호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사랑의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니 빨갱이가 분명하다”는 차원의 논리였지만 박성업의 유튜브에는 나름대로 신성한 논증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이후의 가짜뉴스들은 오로지 “전광훈을 비판하는 것을 보니 빨갱이가 분명하다”는 억지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끔 박성업의 오래된 논증을 재탕하고 있을 뿐이다.

가짜뉴스의 역사적 계보

연도	2011	2013	2017	2019
사건	김홍도 아들의 목회 세습반대	사랑의 교회 가짜 박사학위 비판	명성교회를 비롯한 목회세습 행위 반대	전광훈의 정치운동 비판
가짜뉴스의 생성방식	종북, 반미, 좌파의 4대 원수 (조선일보 전면광고)	사랑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는 북한의 간첩 (유튜브)	교회개혁단체들의 불건전성 조사 (총회의결)	손봉호와 기윤실은 빨갱이 (유튜브)
주요 게시자	김홍도	박성업	예정합동	극우유튜버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반성하기는커녕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행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흔히 목격되어온 일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0년 이후 과정만 보더라도 이 역사적 계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위의 표

를 보면 임의로 선택된 각각의 연도에 신앙적으로 반성과 회개를 촉구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에 기윤실을 비롯한 교회개혁 관련 단체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 당사자들은 결코 수궁하

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 단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할 태세를 갖추었다. 때로는 일간신문의 전면광고였고, 때로는 총회의 의결, 혹은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등장하였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가짜뉴스 형식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언급한 유튜버들이 여러 원로들 중에서 유독 손봉호 장로를 공격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의 손봉호 크레딧’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다. 2019년 6월을 전후하여 일반 언론들은 전광훈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손봉호 장로에게 잦은 출연을 요구하였다.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해설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비록 가짜뉴스이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적 신뢰가 강한 손봉호 장로를 공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광훈의 입지가 더욱 강화된다고 유튜버들이 생각했을 수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7월에 진행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86.6%가 전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좌경화되고 있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전광훈의 말을 믿는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한국의 개신교가 전광훈을 지지하는 것처럼 흥분하지만 개신교인 중 태극기 부대에 5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0.3%에 불과했다. 태극기 부대 참여 경험 전체를 다 합쳐도 2.9%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개신교인 중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

한 한국인의 인식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한국 사회에 룬펜실버(부랑노인층)가 등장하고 있고 가짜뉴스가 그들만의 극우적 계토를 강화하고 있는 현상도 우리의 애처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농업 중심의 대가족 사회에서 노인은 매우 존중받는 계층이었다. 농업기술의 경험이 풍부하지만 낮은 생존 연령으로 인해 노인들은 희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았었다. 산업사회가 되고 생존연령이 높아지자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층은 이제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가 불안정한 룬펜실버가 되어 가짜뉴스에 쉽게 휘둘리는 극우적 계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가짜뉴스의 유튜버 중 절반이 연로한 목사들이며 전광훈의 예배시위 참여자 절대다수가 노인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노인들이 기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짜뉴스를 줄이는 최대의 방안이다.

가짜뉴스는 손봉호 장로와 기윤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에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공격하고 있다. 사실 빛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어둠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둠이 빛 때문에 피해를 당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빛이 그 빛 됄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가짜뉴스가 꿈꾸는 바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¹¹

본 글은 기윤실 소식지에 실기 위해 원문을 요약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 <https://cemk.org/15386/>

〈타다〉 논란, 혁신과 편법 사이

글_손화철(한동대학교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 기술철학)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존 택시 업계와의 갈등, 대표자의 검찰 기소,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법에 대한 비판 등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도대체 이 서비스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본격적인 논의 이전에 먼저 주지할 것은, ‘모빌리티 서비스’ 혹은 ‘차량공유서비스’ 같은 말들이 초래하는 막연한 오해다. 우버 서비스 같은 경우, 평소에는 내 차를 쓰다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시간에 잠시 다른 사람을 태우는 그야말로 ‘차량 공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전업으로 우버를 이용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타다〉의 경우도 운전자는 전업으로 그 일을 한다.



〈타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큰 택시다.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택시처럼 앱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타다〉가 온다. 그런데 법적으로 〈타다〉는 내가 빌린 렌터카이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렌터카에 딸려 오는 운전사다. 원래 렌터카로는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릴 때는 차만 빌려야지 운전사를 함께 빌릴 수는 없다.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는 운전사도 빌릴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 예외 조항에 따라 〈타다〉의 운전사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다〉는 소비자와 렌트 회사, 운전사를 연결해서 사실상 택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으로는 11인승 이상의 택시가 없는데, 1,000대의 <타다> 차량이 지난해 7월까지 9개월 만에 100만 이용 건수를 기록한 것을 보면 블루오션을 찾은 셈이다.

문제는 기존 택시는 전혀 다른 조건으로 운영을 한다는 사실이다. 택시는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는데, 면허는 수가 제한되어 있고 매매 가격도 있다. 현재 개인택시의 면허는 약 6~7천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1억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택시 면허를 따려면 3년 무사고에 영업용 차량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해야 한다. 반면 렌터카에 팔려 오는 <타다>의 운전자에게는 이런 법적인 제한이 따로 없다.

택시업계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했다. 과거 카풀 서비스에 대한 반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조건을 갖추어 영업을 하는데, 아무 진입장벽이 없이 영업을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경쟁하니 불리하다는 것이다. <타다> 측은 자신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은 것이고 택시업계의 손해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국회는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주었다. <타다>의 존립 근거였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도 같이 빌릴 수 있는 조건을 6시간 이상 렌트하는 경우 등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반 이후부터 <타다>는 현재와 같은 영업을 못 하게 된다. 검찰은 이미 <타다>를 불법 택시 운영으로 보고 대표자들을 기소했다.



2019년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갈무리)

이 논란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이 서비스가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인가 하는 점이다. <타다> 서비스를 시작한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 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혁신을 거스르는 기득권 수호로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모빌리티 분야의 다른 혁신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 카카오 택시 호출은 혁신적이다. 택시와 고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어 서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쏘카나 그린카 같은 모바일 렌터카 서비스 역시 혁신적이다. 어디서나 렌트를 할 수 있고, 차를 빌리는 시간도 분 단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부담도 줄이고 공급자의 차량 운영도 더 원활하다. 이 서비스들의 기존의 시장을 완전히 바꾸면서도 그 틀을 위협하지 않는다.

<타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던 주체들을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면에서는 혁신적이지만, 기존의 틀을 강하게 타격한다. 택시 기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차도 소유하지 않고 택시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법의 예외 조항과 ICT 기술을 이용해 사실상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타다>는 11인승 이상의 큰 차만 운행한다는 차이도 중요하다.)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택시 업계와 충돌한 것도 같은 이유다.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해 까다로운 시험을 쳐야 하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충돌이 더 심했다. 기존의 택시 사업은 누가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버나 <타다>와 같은 사업들이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으로 무장하고 그 규정을 흔들고 있다. 간단히 말해, 렌터카를 이용하든 자기 차를 이용하든 아무나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타다> 서비스를 혁신이라 규정하든, 편법이라 규정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혁신이라 해서 모두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편법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혁신이 깨고자 하는 기존의 틀, 혹은 지금 편법에 시달리고 있는 그 규칙의 타당성이다. 택시의 면허 개수와 택시 기사의 자격을 제한한 기존의 규칙이 지금도 타당한지를 물어야 한다. 만약 타당하다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혹시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업계가 부당하게 고수하는 기득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고쳐야 할 것이다. 만약 부당하다면, <타다>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 대신 과거의 틀에 맞추어 과도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손해를 보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¹³

<좋은나무> 구독신청

- ❖ 교회와 사회의 현안에 대한 신선한 관점, 건강한 생각을 제공하는 <좋은나무>를 구독해주세요.
- ❖ <좋은나무>의 글은 이메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나무' 페이지 <https://cemk.org/goodtree/> '좋은나무' 뉴스레터 구독신청 <http://bit.ly/좋은나무구독신청>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 후기

글_ 윤신일 간사



학창시절, 성적표를 받기 직전, 받은 직후의 느낌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좋지 않다면요? 1월 20일, 기윤실 대표메일로 한국교회 신뢰도에 관한 성적표를 받았습시다. 역시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시다. 쓰라린 마음으로 이 지표에 대해 연구하였고, 2월 7일(금) 오전 10시, 여전도회관 1강의실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연승 교수(단국대 경영학과,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는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 사용의 투명성’, ‘윤리와 도덕성 회복’, ‘배타성 극복’을 한국교회와 개신교인이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더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0~40대는 교회학교에 자녀들이 있을 연령이기 때문에 교회와 교단에서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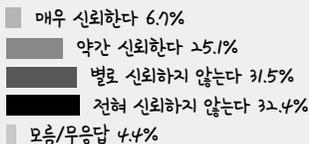
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원,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는 본 결과에 대한 논평으로, 지난 2017년 신뢰도 조사와 비교했는데, ‘매우 신뢰한다’는 수치는 감소하였지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수치는 대폭 증가한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양 부대표(지앤컴리서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기독교 위상 전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폐쇄적·독단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목회자 성범죄, 교회 부자 세습 같은 기본적인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들이 신뢰도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기윤실은 2008년부터 13년간 총 여섯 차례 ‘신뢰도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낮은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이 수치가 오

를 기미는 현재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았습시다. “여론 조작 아니냐?”, “빨갱이들만 모아서 조사했냐?”,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교회·목사님을 신뢰하는데 왜 가짜뉴스를 퍼뜨리냐?” 그야말로 ‘침첩산중’입니다. 같일이 멀다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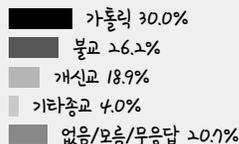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너무나도 흔하고 뻔한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마저도 잊은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지도 못했으며,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많으나 대안은 적은 지금의 한국교회. 본 지표를 통해 개선의 방향에 대해 속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실**

결과 간략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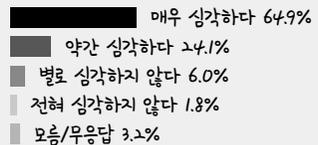
◆ 종합적으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세한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윤실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2020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회” 자료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소개

기윤실은 개신교가 21대 총선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까지 ① 공명선거 감시단 조직 및 파견 ② 온라인 감시활동 ③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④ Talk, Pray, Vote 캠페인 등을 전개함

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교회는 선거중립을 지키고, 성도는 성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의롭고 정직한 정치인이 뽑힐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본 소식지 뒷면에 게재되어 있는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신청하신 교회와 회원님들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교회에 게시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포스터는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명선거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의 방지와 적발을 위한 공명선거감시단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감시와 참여가 있다면 교회가 마음놓고 불법을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교회를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교회
이 구역에 감시단은 나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교회의 불법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공명선거 감시단 모집

신청자격 교회를 사랑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교인 누구나

모집기간 2020. 2. 4(화)~2. 28(금)

활동기간 ~2020. 4. 15(수)

관련문의 070-7019-3757, cemk@hanmail.net

신청방법 하단 신청란 작성



모집인원 : 총 20명(선착순 마감), 교회를 사랑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교인 누구나

활동기간 : 2020년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 (주일) 3회 활동하는 것을 기본.

-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일정배분 가능.

주요활동 :

-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교육 참석.

(3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기윤실 예정)

- 총선 전까지(3월-4월) 지정되거나 참석하는 교회에서 감시단 활동

-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녹취 및 제보

관련문의 및 제보 : 이메일 cemk@hanmail.net,

전화 070-7019-3757

신청방법 : 기윤실 홈페이지 <http://cemk.org>

(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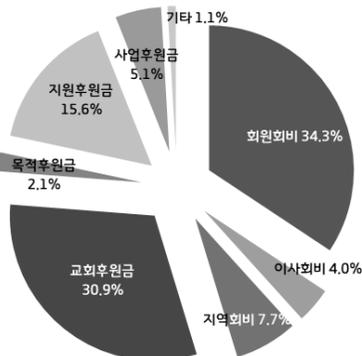
2019년 결산 보고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 재정보고 게시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 목	공익목적사업	
	2019년(당기)	2018년(전기)
I. 사업수익	309,883,048	295,817,974
1. 회비수익 (회원회비/이사회비/지역회비)	139,940,840	139,079,000
2. 교회/기관기부금수익	95,590,000	102,690,004
3. 특정기부금수익 (목적후원금/지원후원금)	54,750,000	24,050,000
4. 기타수익 (사업후원금/등록비/자료판매비/이자수익)	19,602,208	29,998,970
II. 사업비용	325,908,085	295,138,654
1. 사업수행비용	176,528,058	147,611,839
2. 일반관리비용	101,141,501	102,774,659
3. 모금비용	48,238,526	44,752,156
III. 사업이익	-16,025,037	679,320
IV. 사업외수익	4,747,920	4,951,962
1. 노동부지원금	4,728,760	0
2. 잡이익	19,160	4,951,962
V. 사업외비용	67,580	215,380
1. 유형자산폐기손실	2,000	1,000
2. 잡손실	65,580	214,380
VI.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35,255	75,372
VII.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75,372	713,829
수익 총계	314,706,340	300,769,936
비용 총계	326,710,920	295,354,034
당기 순자산의 증(감)	-12,004,580	6,504,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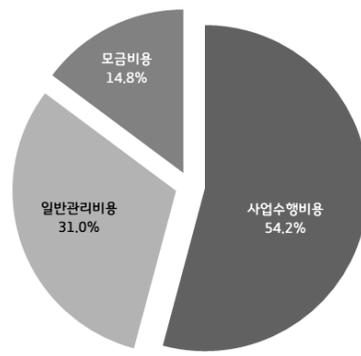
[2019년 사업수익 분포]

총 309,883,048원



[2019년 사업비용 분포]

총 325,908,085원



2019년 11월~12월 후원자 명단

11월

개인후원금 12,510,840 (545명)

(2천) 권용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명호중 박정우 서동진 손은순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민봉 강현주 광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학빈 김한나 김현아 김혜경 김홍식 김희숙 나영식 남준일 노광섭 노승아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세진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택규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서효정 성우경 손영일 송시섭 송철학 신수현 엄현식 오창섭 유창수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해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용아 이정은 이태희 이하정 이혁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선우 정왕호 조세준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구 최경석 최영애 최용권 최인영 최종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황선영 (7천) 신명호 유영신 (1만) 강명길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규 강준영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아현 기세훈 김광환 김근원 김대인 김동준 김만옥 김말순 김명은 김문수 김미경 김민아 김병일 김상규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수희 김연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협 김정미 김중호 김준영 김충환 김학동 김현경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환 김호진 김희안 김희정 남궁설 류선민 류종우 문규 문석윤 문정욱 문현주 민영은 박경춘 박민선 박상호 박상홍 박수경 박수정 박윤정 박의진 박재장 박정임 박종민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철원 박태영 박혜윤 박홍래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용진 백주영 백현주 변현정 서도원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설성호 송상문 손은정 손정아 손현석 손현화 송병문 송준호 송태현 신은심 신승경 신전수 신창조 신희선 안보경 안선옥 안연희 안은상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은석 옥성일 왕보현 원연희 원영대 유근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우 유정윤 유정인 유두선 윤민영 윤신일 윤양숙 윤태호 이금성 이기선 이덕한 이방욱 이상규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운 이용훈 이용훈 이운섭 이원영 이월숙 이은성 이익현 이재만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화 이주환 이지옥 이진수 이충학 이태훈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호식 이화영 임미정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는 장윤희 장재경 전종갑 정규장 정규훈 정동혁 정명해 정상복 정원 정유선 정유진 정은호 정일용 정재훈 정호연 정화조 주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우철 조인형 조정미 조희준 주선경 지삼영 지상섭 진미자 천고은 천무현 천선희 최병성 최상태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인선 최정희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한규원 한민근 한민승 한상호 한석환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허남 허성연 허효일 홍인기 홍정진 황병규 황성걸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1만5천) 강병관 권명희 김명현 김상인 김연수 김철성 김태환 배정주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이수지 정화선 (2만) 강요셉 강은정 강홍구 광상배 금은미 김경미 김대인 김동조 김명희 김민숙 김상한 김성천 김세진 김승섭 김영아 김민선 김정백 김정욱 김정원 김중필 김진표 김태식 김태훈 김홍섭 나종주 남재환 남제현 도종수 문규영 박경라 박기출 박득훈 박명배 박복애 박성일 박은미 박판근 박해리 서임선 송성현 신국원 신대희 신영현 양낙홍 오세란 오진선 온상원 유혜영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석원 이선희 이세영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종규 임지웅 자정화 장민규 장영상 정명환 정중욱 조태래 조현영 차연주 천수연 최경화 최동오 최성수 최영석 최윤선 한병선 한신영 한진영 홍인종 (2만5천) 정세열 (3만) 강석창 구예리 권순홍 김강석 김선욱 김성봉 김영철 김윤진 나영진 노치준 박선영 박재현 박종명 박종원 박철 배정운 서한홍 손병철 손용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안계영 엄용환 우미연 위국명 유성우 유재균 윤영석 윤혁경 이장규 이준복 이천화 임성빈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정해자 송소희 주민선 차정아 최종선 한성준 홍대식 (4만) 김경천 (5만) 고재길 광창대 권수경 권장희 김미숙 김성기 김용균 김혜경 남성태 류은혜 목광수 문현미 박종운 박찬기 배지수 송연자 송인수 신은정 여동명 유해신 이상근 이원근 이의용 이철진 이희석 익명후원자 정문희 최광사 최병제 (5만5천) 조홍식 (6만) 박성령 (7만) 성영은 유인복 (8만) 강영안 (9만) 손화철 (10만) 김경래 박원주 박재우 석종우 후창록 이원우 정병오 조성돈 채홍석 현삼원 (13만) 조현호 (17만) 백종국 손봉호 (25만) 김인빈 (41만) 이상민 (42만) 배종석 (100만) 이재욱 정애주

12월

개인후원금 10,317,000 (556명)

(2천) 권용태 오동춘 (3천) 김원섭 김은이 박정우 서동진 손은순 원종민 정영미 (5천) 강민봉 강현주 광철 권오재 김경숙 김경호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선희 김용미 김재균 김정현 김정훈 김주현 김준철 김학빈 김한나 김현아 김혜경 김홍식 김희숙 나영식 노광섭 노승아 문경환 문덕암 박경희 박상돈 박서현 박선이 박은지 박정민 박제민 박택규 박환승 배재수 백인남 백지열 서효정 손영일 송시섭 송철학 신수현 신희선 엄현식 오창섭 유창수 유혜원 유희경 윤성우 윤해균 이국운 이금아 이기웅 이동혁 이만동 이상철 이선화 이용아 이정은 이태희 이하정 이혁재 이희열 임영제 장준혁 장창수 전장덕 전희숙

정경애 정선우 정왕호 조세준 조인혁 조천권 지상섭 지연심 최경주 최영애 최웅권 최인영 최중원 최진호 추현우 하현주 한유식 한창희
 홍선희 홍일선 홍택주 황병일 (7천) 신영호 유영신 (1만) 강경길 강승문 강승우 강승철 강윤주 강은경 강일구 강종윤 강진미 강진호
 강철원 강호인 강희철 고승표 고정환 공미자 공지태 공헌 권순홍 권아현 기세춘 김광환 김근원 김대인 김동준 김만옥 김말순 김명은
 김문수 김미경 김민아 김병일 김상규 김상범 김상정 김성태 김기연 김영모 김영봉 김영식 김영철 김요열 김윤서 김윤수 김윤진 김은수
 김은영 김인숙 김재환 김경미 김중호 김준영 김충환 김학동 김현경 김현태 김형신 김형중 김혜경 김홍환 김효진 김희완 김희정 남궁설
 류선민 류중우 문규 문정옥 문현주 민영은 박경춘 박민선 박상호 박상홍 박성근 박수경 박수정 박영민 박윤정 박익진 박정임 박주현
 박지연 박진옥 박진희 박태영 박혜윤 박홍래 방형애 배복희 배정호 배진화 백용진 백주영 백현주 변현정 서도원 서동천 서유미
 서일향 설성호 손상문 손은정 손현성 손현화 송병문 송준인 송태현 신승혁 신은심 신은정 신전수 안보경 안선옥 안은상 안정은
 안학서 양민우 양영두 양지혜 오동근 오미영 오은석 옥성일 왕보현 원연희 원연대 위국명 유건호 유동원 유영준 유원욱 유정윤
 유정인 유두선 유민영 윤신일 윤양숙 윤태호 이금성 이기선 이남경 이덕한 이방욱 이상규 이선희 이성진 이수진 이수호 이슬이
 이용운 이용훈 이용훈 이윤섭 이원영 이월숙 이은성 이의현 이재만 이재민 이재윤 이재현 이정민 이정화 이주환 이지욱 이진수
 이충학 이태훈 이현숙 이현호 이형조 이호식 이화영 임미정 임일택 임종록 임종화 임태규 장규선 장기화 장미혜 장서은 장윤희 장혜경
 전중갑 정규장 정규훈 정금영 정동혁 정명혜 정상복 정원 정유선 정유진 정윤호 정일용 정재호 정호연 정화조 조무성 조병진 조용환
 조우철 조정미 조준호 조태래 조희준 주민선 주선경 지상영 지상섭 진미자 천고운 천무현 천선희 최경화 최병성 최상태 최성숙
 최우석 최용 최인선 최정희 최현지 추진연 태원우 하경열 하만중 하용정 한규완 한민근 한민수 한상호 한석환 한이수 한재량 한지연
 허남 허성연 허효일 홍인기 홍진진 황병구 황성걸 (1만2천) 윤영식 (1만5천) 강병관 권명희 김병찬 김상인 김철성 김태환 노대웅
 배정주 오성만 윤영관 이수정 이수지 정화선 최지영 (2만) 강은정 강홍구 광상배 금은미 김경미 김대인 김동조 김두희 김명희 김민숙
 김봉이 김상한 김성천 김세진 김승섭 김영아 김인선 김정백 김정옥 김정원 김중필 김진표 김태식 김태훈 김홍섭 나중주 나희량
 남재환 남제현 도중수 문규영 박경라 박기출 박득훈 박명배 박복애 박성일 박은미 박은하 박종구 박판근 박혜리 변희중 서민선
 성상현 송성현 송형록 신국원 신대희 신영현 안연희 양낙홍 오세란 오진선 온상원 유혜영 이근우 이만열 이명자 이병환 이석형
 이선희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임소희 임지용 자정화 장민규 장영상 전병국 정명환 정중목조현영 차연주 천수연 최동우 최성수 최영석
 최윤선 최지혜 한병선 한신영 한진영 홍인중 홍종락 (2만5천) 박세진 정세열 (2만6천) 김은영 (3만) 강석창 강영안 구예리 김강석
 김선옥 김성봉 김영철 나영진 노치준 박선영 박재한 박종명 박종원 박철 배정은 서한홍 손병철 손용기 손진호 송명숙 송성훈 송택호
 안계영 엄용환 유성오 유재균 유지는 윤영석 윤혁경 이장규 이준복 이천화 임성빈 정민경 정철성 정현철 조승희 차정아 최종선 한성준
 홍대식 (4만) 강춘근 고은정 김경천 박명근 박승호 훈화철 훈광수 (5만) 광창대 구자창 권창희 김미숙 김성기 김용근 김혜경 남성태
 류은혜 목광수 박종은 박찬기 배지수 송연자 송인수 신은정 여동명 유해신 이성근 이원근 이원우 이의용 이철진 이희석 문문희
 정병오 조성돈 최광사 최병제 (5만5천) 조홍식 (6만) 김신근 김진우 최혜원 (7만) 유인복 (8만) 강영안 (10만) 김경래 김진석 박원주
 박종진 백종국 석중호 우창록 익명후원자 채홍석 현삼원 (12만) 배종석 성영은 이상민 (15만) 박제우 이인택 (20만) 박호용 송봉호

2019년 후원 기관 및 교회

교회 | 100주년기념교회 가음정교회 경주교회 고척교회 과천교회 관악교회 공산교회 남군산교회 남대문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대림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안교회 마산재건교회 맘미제일교회 목민교회 목산침례교회 부천명안
 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분당우리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새사랑교회 서문장로교회 서울광명교회 서울모자
 이크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여대대학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영동교회연합회 서울일본인교회 서울중앙교회 서진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시냇가나무교회는 안동교회 연악교회 오문교회 우리들교회 은혜샘물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원동교회 잠실
 중앙교회 좋은나무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주님의보배교회 주빛새들교회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지구촌교회(분당)
 청량교회 청운교회 침산동부교회 향상교회 (57개)

기관 | (주)마임 (주)소프트이천 (주)카나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대주산업 대한기독교간호사협회 법률사무소우리 보성글로벌(주)
 예인법률사무소 예장총회사회봉사부 주안복지재단 지비전인터내셔널 (12개)

신규/재개 회원 | 기윤실 운동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5명) 강요섭 김성기 안계영 이재욱 주세준

12월(2명) 구자창 주님의보배교회

후원과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회원님,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자명단을 영수증을 대신하여 발송합니다. CMS후원의 경우 전월 미출금 된
 금액이 차월에 함께 출금(최대 3개월)되기 때문에 월별 후원금이 회원님께서 약정하신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기윤실 회
 원님께서서는 각 지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아 팀장 070-7019-3756, khash8501@nate.com

●● 활동보고(11/14~02/11)

- 11/14(목) 18:30 임시이사회 및 신입이사상견례(삼일교회)
- 11/18(월)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6회차(기윤실 회의실)
- 11/25(월) 18:30 제8차 청년위원회(기윤실 회의실)
- 11/28(목)~11/29(금) 기록활동가대회(도봉숲속마을)
- 11/29(금) 14:00 교회의사회적책임 포럼 "교회와 공간" (경동교회 장공채플)
- 12/07(목) 13:00 평신도의 상상력 워크숍(CLF비전센터)
- 12/13(금) 07:30 제10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기윤실 회의실)
- 12/14(토) 18:00 청년파티 "N포세대의 취존.생활"(필동 카페바인)
- 12/16(월) 11:00 제21대 총선 공명선거 기자간담회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
- 12/25(수) 15:00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 (광화문 북측광장)
- 12/30(월) 19:00 자발적불편운동 작은 시상식(기윤실 회의실)
- 01/07(화) 기윤실 사무처 워크숍(홍대 인근)
- 01/10(목) 기윤실 상임집행위원회-활동가 워크숍 (고려대학교)
- 01/11(토) 13:00 정읍기윤실 창립대회(정읍 푸른나무순복음교회)
- 01/20(월) 19:00 윤리적투자운동 포럼 7회차(기윤실 회의실)
- 01/21(화) 회계감사(기윤실 회의실)
- 01/23(목) 업무감사(기윤실 회의실)
- 02/03(월) 18:30 제1차 이사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미나실)
- 02/07(금) 10:00 2020년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여전도회관 제1강의실)
- 02/11(화) 18:30 기윤실 회원총회(서울영동교회)



“교회와 공간” 토론

글_윤신일 간사

호화로운 건축으로 논란을 빚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라는 의식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기록교윤리실천운동은 11월 29일(금) 오후 2시, 경동교회 장공채플에서 “교회와 공간: 공간의 공공성과 경건성 사이에서”라는 이름으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건축학과 기록교윤리학자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알아보고 대화하면서 교회라는 공간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특히 사랑의교회가 도로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지만,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 시점에 교회의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환대하는 공간, 열린 공간, 지역 친화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경건성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교회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합니다. 기실



청년파티

글_김현아 팀장

2019년을 채운 각자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나누며 한해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모임을 12월 14일(토), 충무로 카페바인에서 “청년파티, N포세대의 취존.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기윤실 청년활동가들, 청년위원들과 2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는데, 풍성한 식탁교제와 소그룹 주제토크, 울고 웃었던 기억으로 어워드도 진행하며 뜻깊은 이야기들로 연말의 주말을 보냈습니다.^^ 기성세대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방식을 따르기보다 고유한 색과 취향으로 자신의 삶을 그려가고자 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N개의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낙오 된 존재가 아닌, 충분히 존중받고 축복받아야하는 존재임을 기윤실 청년운동본부가 대신 선포합니다. 청년의 일상과 마음을 응원하는 기윤실과 함께해 주세요. 기실

●● 활동계획(02/12~03/31)

- 02/28(금)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서울영동교회)
- 03/08(월)~04/12(일) 제21대 총선 공명선거감시단 활동
- 03/13(금) 07:30 제1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기윤실 회의실)
- 03/27(금) 07:30 <좋은나무>편집위원회 회의(서울영동교회)



(2019년, 어쩌면 가장) 작은 시상식

글_박제민 팀장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연예대상, 연기대상, 가요대상을 챙겨보는 재미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한데요.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어쩌면 가장) 작은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시상은 <자발적불편추천> 부분으로 월간 '복음과 상황'에서 기자로 일하고 계시는 김다혜님이, <자발적불편 수기공모> 부분으로 '아날로그 살림안내소'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시는 이세미님이 선정되었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편리함으로 치장된 우리 사회 속에서 두 분은 일상에서 자연과 공생하며 불편하지만 소박한 삶을 실천하시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삶이 울림이 되어 2020년 자발적불편운동이 소박하게 조금씩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기공모당선작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실

전국 기윤실협의회 소식



전국 각지, 지역기윤실 소식

☆ 정읍기윤실이 창립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토), 정읍 푸른나무순복음교회에서 정읍기윤실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정읍지역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위해 기도하며 사람을 모으고, 뜻을 모아온 정종인 실행위원장은 “한국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자의 도를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소망을 붙잡고 가겠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늘 약자와 함께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정읍기윤실 되기를 기도해주세요!



지역기윤실 현황

광주	고경태 운영위원 (61140)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월산길36	ktyhbg@hanmail.net
대구	노동욱 사무국장 (42480) 대구 남구 대명로65 세아타워 5층	nohandsong@gmail.com
대전	김상호 사무국장 (34927) 대전 중구 대흥로177, 2층	blanma@icloud.com
부산	가정호 사무처장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8, YWCA301호	mento123@hanmail.net
익산	이용호 사무처장 (54619) 전북 익산시 동서로222 새소망정형외과 2층	iksancemk@naver.com
인천	이진오 실행위원장 (21653)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아이플렉스 813호 담쟁이숲 꿈터	greatc@hanmail.net
전남	이광식 사무처장 (59712) 전남 여수시 여서2로51 은현교회	123kslee@hanmail.net
전주	김윤배 사무국장 (55900)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길10-8 삼덕교회	kyb0191@hanmail.net
진주	한영수 공동대표 (52701) 경남 진주시 순환로528, 원정스카이펠리스 6층, 주님의교회	comnot@hanmail.net
청주	홍승표 사무국장 (285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81, 2층	hsp0924@hanmail.net
정읍	정종인 실행위원장 (56194) 전북 정읍시 충정로30 3층	cibank64@hanmail.net
LA	조주현 사무처장	email4acem@gmail.com

YES

공직선거법

NO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 YES** 교인 동정 차원에서 출마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
- NO** 교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나 발언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 YES**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간증하는 것은 **가능**
- NO**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해당 교인이 기도, 간증, 무료 상담(법률상담, 세무상담 등) 하는 것은 **금지**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 YES** 평소처럼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
- NO**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

예배나 모임을 할 때

- YES**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가능**
- NO**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금지**
- NO**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하여 듣는 이가 특정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 NO**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 행위 **금지**
- YES**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 **가능**
- NO**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 **금지**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

- YES**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능**
- NO**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 **금지**
- YES** 교인이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게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가능**
- NO**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지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게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 **금지**